

서울, 정원오 46%·오세훈 38%…부산, 전재수 43%·박형준 41%

등록 2026.05.13 11:21:35



[서울=뉴스시스] 고승민 기자 =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44회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 개최식에서 t시작 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. (사진=정원오 캠프 제공) 2026.05.03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스시스] 이승재 기자 = 6·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46%, 38%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.

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뉴스1 의뢰로 지난 9~10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(응답률 11.0%)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.

정 후보와 오 후보의 격차는 8%포인트로 오차범위(±3.5%포인트) 밖이다. 이어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정의당 후보, 유지혜 여성정의당 후보가 각각 1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'없다'와 '모름/응답거절'은 각각 6%, 7%로 집계됐다.

부산·대구·경남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.

부산시장 선거는 지난 10~11일 부산 거주 성인 801명(응답률 14.7%)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,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43%, 41%로 집계됐다.

대구시장 선거는 지난 9~10일 대구 거주 성인 803명(응답률 20.3%)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,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4%를,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1%를 기록했다.

경남도지사 선거는 지난 11~12일 경남 거주 성인 804명(응답률 13.4%)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5%,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38%로 집계됐다.

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(CATI) 방식으로 진행했다. 서울·부산·대구·경남 지역의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$\pm 3.5\%$ 포인트다.

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russa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